현대불교 전자게시판 15일 개통

'아'로 앞서간다

최초 개발…비디오 설법도



삽화 · 박구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설BBS 'Tiger Team'의 홈페이지 장면.

인터넷 열면 세계불교정보 "한눈"

온라인 토론 · 전자우편 · 홈쇼핑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동양학연구소(ANU)는 인터넷을 통해 웹이나 고퍼 에프티피사이트 등 불교사이트목록을 제공한다. http://coombs.anu.edu.au로 들어가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불교학 가상도서관)를 보면 현재 문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66개, 고퍼와 에프티피사이트가 23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국대학교와 해인사 장경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다.

▲〈Tricycle〉비영리 계간지로 기존 잡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독자토론 여론조사등 다양한 코너를 온라인으로 미련했다.

http://www.wel.com/user/tricycle

▲〈Lotus Buddhist Art Gallery〉 건축 그림 불상등 불교예술과 불교문화 관련자료들을 다룬다.

http://www.lotusstudio.com/

▲〈Pictures of Famous Buddhist Teachers〉 달라이라마 · 틱낙한 등 해외 유명한 선사들의 사진을 모아뒀다.

http://Carleton U, Canada

▲〈Tiger Team〉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불교자료와 불자들과의 온라인 토론을 제공하는 사설 BBS로 인터넷을 통해 범세계 공동체에 불교정보를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신자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지만 티벳불교 18% 중국불교 12% 상좌부 16% 등 다양한 방면의 이용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 포럼등의 학술서비스를 비롯하여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메일을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리스트,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파일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잡지 CyberSangha라는 전자잡지도 내고 있고 온라인상의 통신판매도 가능하다.

http://www.newciv.org/TigerTeam

들과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원하는 기사만을 제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주문형 뉴스서비스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신으로 연결해 주는 구매서비스가 한창이다.

이들 전자신문은 전화선만 가설돼 있으면 인터넷 또는 기존의 통신망을 통해 어느 곳으로든지 제공이 가능해 전세계 '얼굴없는 독자'를 확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를 영상 · 음성으로

인터넷 통한 정보교류 확대

교계 개발현황

90년대 들어 불교정보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적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한 불교정보교류가 점차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9월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교계 최초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에 이어 본사에서도 사설BBS '부다피아'를 통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서비스를 계획중이다.

〈해인사 장경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해인사 소개를 비롯 금강경 열람, 해외불교사이트 접속을 제공한다.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실〉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한국사찰총람을 비롯 불교계인물정보 역사정보 도서정보 등을 제공한다.

〈불교전산원 칠엽굴〉 '아함경'과 '부처님일대기' CD롬을 제작, 마무리 작업중이다.

〈중앙승가대학 전산원〉 '서산대사어록'의 CD롬 작업을 진행중이며 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계속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비의 전화〉 '불교114'를 개통 사찰 및 불교단체의 정보를 전담자가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관련자료 DB화를 계획하고 있다.

〈월간 반야〉 김충호법사가 지난 1월에 창간한 전자잡지로 PC통신의 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부다피아'에 거는 기대

범종단 자료 통합관리

▨ 오상룡 〈하이텔 불교동호회 시솝〉

바야흐로 통신의 시대를 맞아 통신인구는 날로 늘어가지만 이에 반해 불교관련자료는 너무도 빈약했다. 물론 하이텔 천리안 등의 불교동호회를 비롯 몇몇 곳에서 전산화를 추진,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일반사람들이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부다피아의 출범을 계기로 범종단적으로 불교관련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 작업을 부다피아가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다피아가 세계최고의 불교관련자료 BBS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국경·언어초월 교류 가능

▨ 이종복 〈장경연구소 인터넷담당〉

불교의 모습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항상 새롭게 변하면서도 불교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불교의 모습 역시 지금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인터넷에는 많은 수의 불교사이트가 있고 이것을 통해 전세계의 불교신자들이 시간과 국경 언어를 초월한 토론을 벌이며 자료를 주고받는다.

CyberSangha라 불리는 BBS를 통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이제 부다피아를 보며 우리나라의 Cyber-Sangha를 꿈꿔본다.

외국 불교소식 교량역할

▨ 여성혁 〈천리안 불교동호회 시솝〉

불교동호회를 꾸려나가는 젊은 청년으로서 부다피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불자들의 수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경전이나 설법등을 재미있게 풀어서 게시판에 올려주길 바란다.

또 외국불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교계현실에서 부다피아가 인터넷과 연결하여 외국불교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불교계의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 일반 재가불자와 스님들의 의견등을 함께 게재하면 어떨까?

앞으로 부다피아가 불교정보 전문 BBS로 굳게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

불교만화

쉽게하는 불교공부
문서포교의 선구자
법보시의 새영역

온가족이 함께 봅니다

불타석가모니 · 만화화엄경
만화 반야심경 · 만화 백유경 · 만화 성철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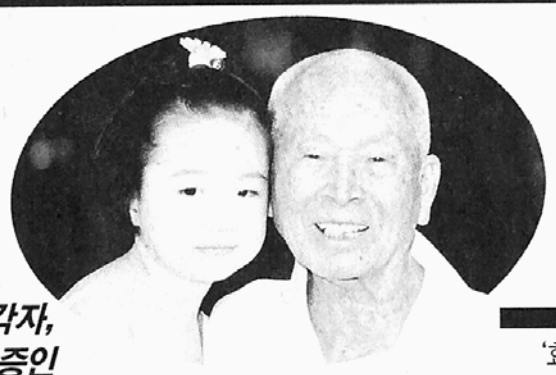
* 군부대나 교도소에 법보시할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

불교만화사
전화 : 723-8426~7 / 팩스 : 725-0194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4층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꾸 몇번씩봅니다

만화불교

어·른·과·어·린·이·가·함·께·보·는·책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추천도서

민족불교의 선각자,
한국불교의 산 증인
강석주 큰스님의 투명한 이야기

석주 스님은 지극히 꾸밈없고 소박한 생활로 우리에겐 친근한 할아버지가 되어 잊기 쉬운 '효사상'을 일깨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계'를 지키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스님 할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큰스님, 늘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를 닮아 사는 스님이다.

[redacted] 이 책을 통하여 '효사상'을 강조한 석주 큰스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다.
• 부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

-석주 스님 말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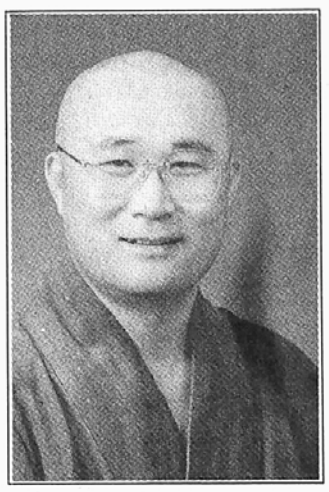
케이스에 담겨있는 예쁜 책은 이웃에 선물합시다!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철규 지음 / ①·② 각권 값 4,500원

우리출판사 Tel. 313-5047 Fax. 393-9696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